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소집

당면한 경제형세와 경제사업 분석 연구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 회의 주제

[북경 9월 26일 발 신화통신] 중공중앙 정치국은 26일 회의를 소집하고 당면한 경제형세를 분석 연구함과 아울러 다음 단계 경제사업을 포차했다.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이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올해 들어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하여 난관을 돌파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며 거시적 조절통제 강도를 높이고 개혁개방을 적극 심화하며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경제구조를 최적화하는 데 진력하여 경제운행이 총체적으로 평온하고 안정적이었다. 신질생산력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민생보장이 유력하며 중점 분야 위험을 방지, 해소하여 적극적인 진전을 가져왔으며 고품질 발전이 착실하게 추진되고 사회 전반 국면이 안정을 유지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 나라 경제의 기본면과 시장이 광활하고 경제 근성이 강하며 잠재력이 큰 등 유리한 조건은 변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당면한 경제운행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 당면한 경제형세를 전면적이고 객관적이며 냉정하게 대하고 곤란을 정시하고 신심을 확고히 하며 경제사업을 잘하

는 책임감과 긴박감을 확실히 증강해야 한다. 중점을 틀어쥐고 주동적으로 행동하며 보유량 정책을 효과적으로 락착하고 증가량 정책을 힘써 출범하며 정책조치의 목적성, 유효성을 한층 더 높이고 전년도 경제, 사회 발전의 목표와 임무를 힘써 완수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재정 통화정책의 역주기 조절 강도를 높이고 필요한 재정지출을 보장하며 기층의 '세가지 보장' 사업을 확실하게 잘 해야 한다. 조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 전문채무를 제대로 발행, 사용하여 정부 투자의 견인 역할을 더 잘 발휘 시켜야 한다. 예금 준비금률을 낮추고 강도있는 금리 인하를 실시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이 하락을 멈추고 안정으로 돌아오도록 촉진하고 상품주택 건설에서 증가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보유량을 최적화하며 질을 제고하고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 대출의 투입 강도를 높이며 유휴토지의 활성화를 지지해야 한다. 대중의 관심사에 응답하고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조정하며 보유주택 대부금 리률을 낮추고 도지, 재정세무, 금융 등 정책을 서둘러 보완하여 부동산 발전의 새 모델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자본시장을 힘써 진작시키고 중장기 자금의 시장 진입을 대

체적으로 인도하여 사회보험, 보험, 재테크 등 자금의 시장 진입 저지점을 높여야 한다. 상장회사의 인수합병과 재편성을 지지하고 공모자금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중소기업자를 보호하는 정책조치를 연구 출범시켜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기업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 관련 집행과 감독관리 행위를 한층 더 규범화해야 한다. 민영경제촉진법을 출범시켜 비공유제경제 발전을 위해 광호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소비촉진과 민생해택을 결부시켜 중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촉진하고 소비구조를 향상시켜야 한다. 새로운 소비업태를 육성해야 한다. 사회력량이 양로, 위탁양육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지지하고 규범화하며 출신 지원 정책체계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자금유체와 자금안정 강도를 높이고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등 개혁 조치를 서둘러 추진 실시하며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한 일류의 경영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민생 최저선을 확고히 지키고 대학졸업생, 농민공, 빈곤퇴직인구, 제로취업가정 등 중점군체의 취업 사업을 중점

적으로 잘하며 고령, 장애,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저소득 인구에 대한 구조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식품, 수도, 가스, 난방 등 중요 물자의 공급보장과 가격 안정을 잘 틀어쥐어야 한다. 식량과 농업 생산을 확실하게 틀어쥐고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관심을 돌리며 가을철, 겨울철 생산을 잘 틀어쥐어 국가의 식량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지역, 여러 부문은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를 참담게 관철 실시하고 열심히 사업하며 한마음한뜻으로 전사회적으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적극성, 주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불러일으켜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과 호전을 추진해야 한다.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용감하게 책임지고 과감히 혁신하며 난관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업적을 내야 한다. 사람을 선발하고 임용하는 풍향계를 잘 세우고 '세가지 구분'을 참담게 실시하며 담당자를 위해 책임지고 일하는 사람을 지지해야 한다. 경제대성에서 대들보를 짚어지고 견인하고 지주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도록 지지해야 한다.

회의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다.

장백산, '세계관광명산' 칭호 수여받아

- 첫진의 14개 '세계관광명산'에 국내 9개 산 입선

9월 26일, 귀주성 흥의시에서 열린 '2024 국제산악관광 및 야외운동대회'에서 장백산이 국제산악관광명산으로부터 정식으로 '세계관광명산' 칭호를 수여받았다. 이 칭호의 획득으로 장백산의 국제 지명도와 영향력이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관광명산-인정기준'과 '세계관광명산-인정지남'에 근거하고 국제산악관광명산 '세계관광명산인정위원회'의 관련 사업 절차 심사를 거쳐 이번에 국내의 장백산, 아미산, 범정산, 현산, 옥룡산, 향산, 승산, 무공산, 망산과 스위스의 소녀봉, 네팔의 안나푸르나봉, 에스빠냐의 리스코카이도고교화성산, 포르투갈의 에슈트레라산맥, 남아

프리카공화국의 탁산 등 14개 국내의 명산이 첫 '세계관광명산'으로 인정되었다.

이번에 '세계관광명산' 칭호를 획득한 것은 장백산의 독특한 자연풍경, 두터운 문화바탕 및 탁월한 관광서비스에 대한 높은 인정이다. 장백산은 감탄을 자아내는 자연경관은 물론 유구한 력사문화를 담고 있다. 최근년간, 장백산관리위원회는 '12510'전략을 적극 실시하여 세계적인 관광목적지를 구축하는 데 진력하고 관광 기반시설 건설과 생태환경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관광상품을 혁신하고 봉사 품질을 향상하며 천혜의 생태자원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더욱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장백산에 와서 레저휴가를 보내도록 했다.

/유경봉기자



길림과 연변, 국가급 시범 명단에 입선

최근, 상무부는 공식 사이트에 도시 15분(一刻钟) 편민생활권 제4진 전국 시범 및 제1진 전역 선행구 추진 시범 명단을 발표했다. 상무부 등 11개 부문은 전국 제4진 도시 15분 편민생활권 시범지역 60곳, 도시 15분 편민생활권 제1진 전역 선행구 추진 시범지역 15곳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중 길림성의 길림시와 연변조선족자치주가 전국 제4진 도시 15분

편민생활권 시범지역 60곳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동북에서는 료녕성의 이주시와 반급시, 흑룡강성의 계천시와 수화시가 명단에 입선됐다.

도시 15분 편민생활권 제1진 전역 선행구 추진 시범지역 15곳 명단에는 흑룡강성 가목시, 시가 동북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본사기자



국내 최고 전문가 13명, 연변병원에서 무료진찰

9월 26일 오전, 중국인권발전기금회 공익기부 및 현장 무료진찰 행사가 연변에서 있었다. 행사는 사회각계의 힘을 모아 연변인민에게 따뜻함과 건강을 선물하고 연변인민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하도록 노력하는데 취지를 두었다. 중공중앙 선전부 인권발전기금회 부리사장 겸 비서장인 좌봉이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장에서 중국인권발전기금회는 도서, 디지털 도서관, 애니메이션 교과서, 혈당계 등 도합 1,600여만원 어치의 물자를 연변에 기증함으로써 도서관의 장서 자원을 풍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 간부와 군중들이 학습하고 열독하는 데 더욱 많은 선책을 제공해주었다. 이와 동시에 수도의과대학부속북경중의병원, 북경대학제1병원 등 국내 최고병원에서 온 13명 전문가가 연변대학부속병원(연변병원)을 찾아 교류와 무료진찰 행사를 함으로써 연변의 의료 수준을 제고하는 데 촉진 역할을 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중국인권발전기금회는 중공중앙 선전부 주관으로 인권 분야의 국제교류, 교육강습, 리론연구, 공익자선 사업에 종사하는 전국적인 공모기금회이다. "그중

안 중국인권발전기금회는 변강민족 지역 인민들의 제반 권의 보장을 매우 중시하여 일련의 사회공익행사를 기획, 전개함으로써 실제 행동으로 중국 인권사업의 발전을 조력해왔다." 중국인권발전기금회 기금프로젝트 업무주관 좌봉은 새 중국 창건 75돐에 즈음하여 중국인권발전기금회가 연변에서 공익기부와 의료전문가 무료진찰 행사를 펼친 것은 공익 형식으로 따뜻함을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무료진찰 현장에서 전문가들은 흔히 볼 수 있는 병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해답하여 자신의 신체

상황을 료해하도록 환자들을 도와주었다. 아울러 환자들의 건강 상황에 근거하여 과학적이고 합리한 견의를 주어 질병의 조기발견, 조기진료에 대한 의식을 한층 더 제고시키고 대중들이 가까운 병원에서도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누리게 했다.

연변대학부속병원(연변병원) 선전동전부 부장 리광희는 "전문가들은 선진적인 진료 리념, 량질의 의료자원을 연변에 가져와 학과 건설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백성들이 더 편리하게 병을 보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길림일보

연길, 두개의 '전국 100강' 명단에 입선

최근, 연길시당위 재경판공실에 따르면 연길시가 두개의 '전국 100강' 명단에 올랐다. 《경제일보》가 《2024년 중국 중소도시 고품질 발전지수 연구 성과》를 발표한 가운데 연길시가 '2024년도 전국 친환경 발전 100강 현시' 47위, '2024년도 전국 과학기술혁신 100강 현시' 74위에 들었다.

료해에 따르면 중국 중소도시 발전지수 연구과제조와 국선 중소도시 지수연구원은 중국 중소도시 발전지

수 연구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20년간 중소도시 과학발전지수에 대해 깊이있고 체계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과제 연구는 공개, 공평, 공정, 공익의 원칙을 준수하였으며 단계적인 연구결과가 《인민일보》, 《광명일보》, 《경제일보》, 신화사와 《중국 중소도시》를 통해 대외에 발표되어 그 권위성과 영향력이 사회각계의 인정을 받고 있다.

/본사기자

연길 - 장춘 고속도로 이 구간 9월 30일 개통

연길-장춘 고속도로(이하 '연-장 고속도로') 연통산-쌍양서 구간이 9월 30일 개통된다. 이 대상은 이미 개통된 장춘-태평천 고속도로와 함께 국경절 황금련휴에 출행하는 광범한 대중들에게 두갈래의 새로운 쾌속출행 련행 통로를 제공하게 된다.

연통산-쌍양서 구간은 G1221 연-장 고속도로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전체 길이가 40.4킬로미터, 설계시속 120킬로미터로 4차선 고속도로 기준으로 건설되었다.

연통산-쌍양서 구간은 길림시 반석시 연통산진에서 시작하여 이미 개통된 따푸차이허-연통산 구간과 연결되는데 중점은 장춘시 쌍양구 룡향진에 위치해 있으며 도합 40개의 다리, 2개의 상호통차식 럽교차선과 신록봉과 쌍양서 2개의 수급소가 설치되어있다.

연-장 고속도로는 국가의 중대한 전략적 수요와 련결시키고 국가 고속

도로 계획 배치를 시달하며 길림성 현대화 기반시설 체계를 구축하는 중점공사이다. 연통산-쌍양서 구간의 개통은 연선의 관광자원을 통합하고 지방의 교통관광 융합을 촉진하며 향촌의 전면적인 진흥을 이끄는 데 중요한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미 장춘에서 장백산으로 통하는 북부통로(장춘-길림-돈화-안도-장백산)와 남부통로(장춘-이통-반석-취남-정우-무송-장백산)가 건설된 토대 위에서 연-장 고속도로가 또 중부통로(장춘-화전-장백산)로 되어 장춘에서 장백산으로 통하는 3개 고속도로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길림이 고품질 관광강성을 서둘러 건설하는 데 조력하고 길림의 전면 진흥이 새로운 돌파를 이룩하는 데 중요한 버팀목 보장 역할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

/길림일보

연길시 제 8회 '무형문화의 메아리' 음악회 화려하게 막 올려



연길시조선족무형문화유산보호센터에서 앞실들여 준비한 연길시 제 8회 '무형문화의 메아리' 음악회가 9월 23일, 연길시문화관 극장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이번 음악회에 국가와 성, 주, 시급 전통음악류 무형문화유산의 대표적 전승인들과 연주자 37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금, 단소, 피리, 가야금, 조선족농악장단 등 전통음악류의 고품질, 고수준의 음악작품들을 선보였다.

무형문화유산은 인류 지혜의 결정체이며 민족문화의 보배이다. 음악은 시공을 뛰어넘는 언어로서 무형문화유산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의 하나이다.

음악회에서 무형문화 문예일꾼들은 독특한 '무형문화의 메아리'로 관중들로 하여금 력사가 담고 있는 기억을 느끼게 하고 생활에 대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동경의 미묘한 선율을 전달했으며 음악의 바다에서 무형문화가 내포하고 있는 두터운 문화바탕과 독특한 예술매력을 느끼게 했다.

/박경남특약기자



국경절 기간 휴간 통지

길림성우정국과의 발행 계약에 따라 본지 2024년 10월 1일(화요일), 10월 3일(목요일), 10월 5일(토요일) 신문은 휴간합니다.

/편집부